

기후변화 대책도 맞춤형 전략으로...

IPCC, 선진국·개발도상국 관심 목표 달라 ... 선진국은 경제적 이익강조

지구 온난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이한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설득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N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 2007년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헝가리의 우르게 포자츠 박사는 “기후변화가 모든 지역에서 증시되고 있지만 이유는 각기 다르다”면서 대상국가별로 맞춤형 설득 전략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사회복지 개선이나 에너지 문제, 사망률 문제를 통해 쟁점화시키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취사나 난방·조명용으로 연소되는 엄청난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공해배출로 사망한다”고 지적하고 “공해가 적은 연소기나 태양열로 대체한다면 온실 가스도 줄이고 생명도 구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르게 포자츠 박사는 선진국은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 기후변화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가 고용 집약적이어서 고용 창출과 사회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선진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르게 포자츠 박사의 맞춤형 설득 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미국의 백악관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IPCC는 기후변화 문제를 쟁점화 시킨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앨 고어 전 미국 대통령과 공동 수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7>